승무가 이철진, 대학로서 전통춤 미래 일으키다



이철진 대표는…한성준–한영숙–이애주–이철진으로 이어지는 한영숙류 3세대 춤꾼이다. 2006년부터 대학로 성균소극장을 통해 전통춤 소극장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825회 이상의 승무 개인발표회를 가졌다. (사)한국춤예술센터, (주)구슬주머니를 설립했으며 아시아무용대전(ADF), 국제 2인무 페스티벌(DDF), 국제불교무용대전(BDF), 전통춤 류파전(RYU)과 국제 무용네트워크를 위한 IDANS(International Dance Networks in Seoul) 등을 기획 제작하며 한국무용의 국제적 확장에 힘쓰고 있다.



매년 봄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불교무용대전. 무용가뿐 아니라 신심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비전공자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진 대표의 공연 모습. 후학들이 승무의 깊은 예술의 맛을 깨닫길 기대한다.

이철진 성균소극장 대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대학로 한복판 번잡한 거리 끝자락에 자리잡은 작은 극장 '성균소극장'. 조용한 무대 한가운데, 흰 장삼을 차려입은 사내가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는다.

한국 전통춤의 맥을 좇아 승무에 평생을 바친 춤꾼, 성균소극장을 이끄는 이철진 대표다. 1969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대표 전통예술 승무는 최초 보유자 한영숙에 이어 2세대 이애주에서 3세대 전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철진 대표는 한영숙류 3세대 춤꾼으로 30여 년간 승무 전판 공연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승무의 곡선을 따라 살아온 그를 만나 삶과 철학, 그리고 불자로서의 고백을 들었다.

출가 꿈꾸던 시절, 스승 만나 승무 길로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란 이철진 대표는 막연히 '언젠가는 머리 깎고 출가할 것'이란 생각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합천 해인사 금선암에 머물기도 했다.

비록 스님은 되지 못했지만 수행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던 1990년 1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찾아왔다. 무용학원을 알아보다 우연한 기회에 이한열 열사 노제에서 '한풀이 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이애주(1947~2021, 중요무형문화유산 승무 보유자) 선생을 만났다. 이애주 선생의 첫 마디는 "한국 춤에 숨어 있는 외색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화두를 든다고 한다"는 것. 이미 불교에 심취해 있던 이 대표에게 그 한 마디는 춤꾼이 되라는 말로 느껴졌고, 본격적으로 승무를 추게 됐다. 7개월 동안 살풀이 춤 전판을 사사했고 북놀음을 포함한 승무 전판을 배우며 1994년, 이애주 선생의 제자들과 함께 첫 승무 공연에 올랐다.

이후 이 대표는 여느 예술학도와 마찬가지로 연습을 쉬지 않았다. 늦게 시작한 만큼 알고 싶은 것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춤에 대한 대단한 식견이나 비전보다는 오직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바탕으로 춤을 연습했다. 이애주 선생은 오직 승무만 추라고 늘 말했다. 승무만 되면 모든 춤은 따라온다는 것이다. 대관령 한 폐교에 머물며 100일간 새벽기도와 연습을 이어갔고 이후 대학원에 입학, 학업에 정진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출판된 이철진 대표의 저서 <나의 승무 나의 춤>.

출가 꿈꾸다 이애주 선생 만나 화두
"오직 승무만…모든 춤 따라온다"
20년 간 소극장서 장기공연 돌입
중요한 건 숫자 아닌 숨 쉬는 자리
"세월 갈수록 승무 믿음 깊어져"

대학로 소극장 운동, 승무의 새로운 무대

학위를 마칠 무렵, 개인발표회에 점차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업 중 10여 년간 공연을 이어왔으나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공연인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춤은 점차 고착되고 긴장감이 사라지며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하루 공연을 위해 364일 연습하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했어요."

전통춤, 특히 승무는 보통 중대형 무대에서 일회성 공연으로 존재해 왔다. 364일을 연습하고 단 하루만 관객을 만나는 것이 아쉬웠던 그는 관습을 깨기로 했다. 2006년, 침수돼 버려져 있던 대학로 지하 공간을 빌려 성균소극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전통춤 소극장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첫걸음은 쉽지 않았다. 무용계는 물론이고 관객을 모으는 일도 녹록치 않았다. 그는 '100일간의 승무 이야기' '49일간의 승무 이야기' 등을 기획했고 지속적으로 승무 하나로 장기공연을 올렸다. 대학로에서의 공연들이 대부분 힘겨운 현재를 잊게 해주는 뮤지컬이나 코미디 같은 것인데 반해 승무는 색다른 시도였다. 하루 관객이 스무 명에 불과한 날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관객 숫자가 아니라 춤이 살아 숨 쉬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어느 순간 만석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점차 승무 전판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간 것이다.

"춤을 추고 싶어 극장을 만들었고 2024년까지 한영숙 승무 전판을 춘 것이 825회입니다. 제 가장 찬란한 시기를 작은 극장에서 버선을 신으며 보낸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성장했고, 승무 무대도 그렇게 바뀌어왔죠."

뿐만 아니라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세웠다. 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와 예술단체 구슬주머니를 설립, 전통춤 보존과 창작 그리고 전승을 위한 구조를 구축했다. 이런 시도는 단지 무대의 확대가 아니라 전통춤이 '살아 있는 예술'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통로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전통춤은 고요한 박물관 속 기록이 아니라, 숨 쉬고 울고 웃는 오늘의 몸이 된 것이다.

정식 개관 20년. 지나간 시간만큼 성균소극장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

먼저 승무 장기 공연에 대한 의심을 사그라지게 했다. '천년승무이야기' '108일간의 승무 이야기' '화요승무이야기' '다시 100일 승무이야기'가 이어졌고 이애주 선생이 작고한 2021년에는 '49일간의 승무이야기'가 무대를 채웠다. 또 '국제불교무용대전' '맞장' '남선춤 6인전' 등의 장기공연 실험과 '레지던시 in성균' '소극장 상주단체' 시스템 등이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

춤에서 시작된 열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철진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이 대표는 "세월이 갈수록 한영숙류 전통춤과 승무에 대한 신앙과 같은 믿음도 깊어진다"고 했다.

이철진 대표의 다음 목표는 승무 최초 보유자 한영숙의 '지숫기(공굴리기)'를 되살려 한국인만이 가지는 특유의 전일적 몸관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는 "전통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고유의 형식과 그들 특유의 세계관에서 나온 몸관이 그 안에 살아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인 특유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영숙의 몸관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불교무용 보존·계승을 위해 스스로 갈고닦음을 주저하지 않는 이철진 대표. 그의 장삼이 그리는 흰 곡선에는 스승들에게서 이어받은 정신이자 미래에게 건네는 약속이 담겼다.

불기 2570(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을사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강원지사	010-7339-8688	이동격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